

연중 제18주일

기도서 P. 404 A해

- 제1독서(이 사 55, 1-3)
- 제2독서(로 마 8, 35, 37-39)
- 복음(마 태 14, 13-21)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인: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3201

□ 강론

통(便) 원로나, 영생 원로나?

이 상 섭 신부

인간이 먹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그 의미는 마찬가지이다.

하루 생활중 끼니를 얻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마는 인간은 이것만을 위해서 아웅다웅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살자(?)는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다. 왜 측은치 않았던 안되었을까?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빵없이 살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원료이기 때문이다. 이 빵은 시간부 생명을 키워주는 우리 생명의 핵이며, 또한 이것은 통(便)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이 시간 형제앞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신다.

"공짜 빵맛을 보여줄까요? 그렇다고 공짜 빵맛을 못 있어 또다시 나를 찾지는 마시오. 영을 지닌 인간이 어찌 그리 속없이 영이 없는 물질의 빵에만 마음을 쏟으십니까? 곧 통(便)으로 되어버릴 음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키워주는 빵을 구하십시오. 당신들이 구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이 빵을 내가 주겠소.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며, 생명의 빵이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군중이 얻어먹은 빵은 일시적인 생명을 키워주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빵(=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빵 몇개로서 많은 군중이 먹고 배부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한몸인 성체로도 많은 군중이 영원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먹고 있는 현세의 빵은 통(便)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영생원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혹 통(便)원료인 빵에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영생의 빵!

우리는 영생의 원료인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한 평일미사에 자주 나와 빵의 형상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생명의 빵을 얻기 위하여.

(둔울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저 잘난 생각"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고 하지만 가끔은 착각하는 때도 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게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그렇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보면 융화와 평화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보니 자기가 한 일에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소유한 지위나 명성, 학식, 재물 등에는 그만한 대접을 받고 싶은게 상정 이지만 남을 알고 자기만 위해 달라는 심사는 생각 해 볼 일이다.

무더운 여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의 일이었다. 조교의 신경질적인 교육 방법에 짜증스러울고, 심심풀이 식으로 대하는 모습엔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에 순종(?) 할 밖에...

몇번이고 반복되는 높은 포복·낮은 포복의 선착순 훈련 중, "동작 그만. 맨 앞 사람 일어섯. 저쪽으로 가 쉬었". 하고 관용(?)이 베풀어졌다. 그때 그 친구의 답이 "괜찮아요. 이 분들과 같이 할립니다."하는 뜻밖의 소리였다. 그 순간 약간의 침묵이 흘렀고, 조교의 태도는 일변 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을 마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남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진 귀코리만한 권력에도 목에 힘을 주고 하시 하려는 경향이 만연한 세상에 자기의 노력에 당연한 특별대우를 거절한 그의 생활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엄습함은 왜일까?

특권의식은 특별대우를 낳아서 서로의 거리를 갖게 하고 미움을 유발 시킨다. 특별대우는 누구나 누리고 싶은 충동을 받지만, 한번 맛 들이면 마치 어떤 중독처럼 진 구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 12)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지변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숲 정 이 산책



요즘 기온과 같이 올라가라



세상을 위해 나의 고통을 바친다

—교황 피격 그 이후—

항상 폭력을 개탄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5월 13일 성 베드루 광장에서 터키의 한 청년으로부터 뜻밖의 피격을 받았다. 복부와 오른쪽 및 왼손에 총상을 입은 교황은 피격 직후 바티칸으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제멜리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5시간 반동안 9명의 의사들로부터 총탄 제거 및 결장절제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 교황은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 신경계통에 큰 상처를 입지않아 불행중 다행으로 여겨진다.

교황 피격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도처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교황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특별미사와 기도를 드렸다. 피격 4일째인 6월 17일 교황은 처음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앉는 등, 병세에 호전을 보였으며 공식 메시지를 녹음하기 위하여 약30분간 앉아 있기도 했다.

이태리어로 녹음된 메시지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를 저격한 우리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나의 고통을 바친다.”

성 베드루 광장에 모인 3만여명의 신자들에게 방송된 교황의 이 강건한 육성은 듣는 이에게 눈물과 안도감을 자아내게 했다.

또한 61세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이날 메시지에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교황은 자신과 함께 저격범에 의해 부상당한 2명의 여성들에게 특별한 친절감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쾌유를 빌었다. 그런데 저격범에 의해 부상당한 58세의 미국 여성은 복부에 맞은 총상으로 중태이다.

한편, 교황을 성 베드루 광장에서 저격한 사람은 23세의 메메토 알리 아자라는 터키출신 폭력주의자이다. 그는 터키 신문 편집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79년 터키 교도소로부터 탈출한 사람이다. 터키 당국은 그가 극우폭력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정체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격 후 5일동안 제멜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교황은 61회 생일인 5월 18일 성 베드루 성당이 보이는 11층의 일반병실로 병실을 옮겼다. 담당 의사들은 피격때 입은 총상으로 교황은 왼쪽 집체손가락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불의에 피격을 받은지 25일만인 5월 13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난 교황은 아직 창백하고 여위었다; 아직도 한 차례의 수술을 남겨놓고 있는 교황은 이날의 대 미사를 집전했으며 이어 성 베드루 광장이 보이

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에서 8만여명의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가톨릭 교회가 현 세계의 정치로부터 초연하려 하면 할수록 가톨릭 교회가 현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짐은 아이러니칼한 현상이다.

폭력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세상인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려 한다.

이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고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황은 1979년 터키 방문 때 이미 암살위험이 뒤따르다는 귀뜸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말하며 터키 방문을 강행했던 것이다.

“사랑은 위협보다 더욱 강하다”

하늘에 아비타

여름날에
흰구름으로 피어오르는
당신을 향한
떨리는 작은 가슴을 아십니까.

그 하늘은
물방울 빛이고 탐스러운 것이고
(淸)맑음으로 나를 사르는
눈물방울 같은 것을...

가슴 깊이에 자리하여
영원한 그리움으로 키가 크며
아름다운 선율을 타는
작은 슬픔같은 것을...

아~ 그것은 감미로운 당신의 넘치는 사랑이여라.

주여 나를 태워주소서
빈 그릇을 채우소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뵈오리다.

주여
내 눈을 맑게 하소서
그리고 그 햇빛과 구름과 하늘
모두를 보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따르는 양 한마리로
평화의 하늘을 흰구름처럼 피어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늘, 바람을 바라보며
기도를 먹고사는 生命이 되게 하소서.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 樂 均(요셉)

여름철에는 값이 짱니다
순 누에고추 100% 이불송

하 이 실 크(眞)
자매품

슈 퍼 실 크(元)

순명주(SILK 100%) 보증표를 확
인하세요

제조원 **海星製綿工業社**
전주시 금암동 678(덕진경기장앞)
소 루 가(秉乙) 전화 ③9045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⑥4989(사구팔구) ⑥4988

□ 대성황을 이룬 「교리교사 연수회」

교리교사 연합회(지도신부 김병환)에서 개최한 '여름 방학중의 어린이 교리'를 위한 교리교사 연수회가 지난 7월 25일~26일에 있었다.

금년들어 최초로 무더운 날씨인데도 어린이들을위한 교사들의 열성은 대단했다. 35개 본당이 참가했는데, 그 수효는 231명에 달했으니 말이다.

3명의 강사가 지도했는데, 현직 교리교사로서 지도를 맡았던 주 아우구스띠노씨의 체험과 열성은 교사들에게 감명과 자신감을 주었으며, 가톨릭 센터의 배려는 당연한 불편을 절감할 수 있었다.

—미 답—

□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지난 6월 24일 작고하신 모친의 뜻을 받들어 장남 신 균영씨는 자가용(포니웨곤 전부 4-4778) 1대를 복자성당에 기증했다.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며 병석에 누워계시던 홍마리아(명선)씨는 건강하셨을 때 열심한 신앙생활로 모범이 되었다. L·M, 방ziger 살회, 애령회, 부녀회 등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나, 3년전 암과 투쟁하면서 병석에 누웠었다.

그동안 본당 신자들, 즉 LM단원, 부녀회원, 애령회원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가 위로와 기도를 드렸으며, 특히 돌아가실 무렵에 신자들의 정성어린 병문안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신자들의 기도속에 장례식을 성대히 치른 후 이에 대해 홍마리아씨 가족들은 감사의 뜻을 표했었다. 그리고 장남 신균영씨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교회에 차가 필요하니 하나 기증해 달라"라는 유지를 받들어 지난 7월 18일 새차(수수로 포함 500만원 상당)를 복자성당에 기증하여 주었다.

이에 주임신부(김종택) 이하 여러 교우들은 홍마리아씨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전교 사업을 위해 이 차를 유용히 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복자성당 제공)

□ 사랑 실천에 연중 무휴

정음본당(주임신부 강인찬)은 특정한 일정을 통한 불우 이웃돕기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이며 항상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뜻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전 가정에 돌리고 매주간 쌀이 모아 지는데, 이미 13세대를 도와줬으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 선교의 전위대 「쁘레시디움」 탄생

이 더위에 건강만 하여도 고마운 일인데, 「이웃 선교의 해」에 걸맞은 선교의 전위대가 탄생했다.

덕진(주임신부 서석기)의 "하늘의 문" 뿌레시디움은 남성들로 구성되었고, 함열(주임신부 서석구)은 청년들로 이뤄졌는데 명칭은 "천사의 모후"이다.

혼자 전교하기란 어려운 일, 뜻있는 사람은 각 본당의 '테지오 마리에'에 가입하여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길 바란다.

축! 영 명

장 인 찬(도미니코) 신부님-8월 8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417) 김병환



회원 모집

본 연구원은 여성들의 취미 및 부업을 위한 여성 교실입니다. 바가지 공예를 배우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시로 접수(개인지도)

김 정 자

바가지 공예 연구원

김 정 자(마르타)

조흥은행

2층 주택은행

←오거리

이 결법

방사선과의원

중소기업은행

토롱진액 판매 안내

토롱진액 개발에 따라 성모병원 3층에서 아래 장소로 이전 판매하니 애용하시어 진강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 종래보다 18배의 효능

성분	토롱탕	토롱진액	가탕 1회	진액 1회	생토롱
	조단백 0.4%	조단백 75%	1.000	3.000	1kg 8.000

(본 판매업을 희망하시는분은 문의 바람)

한국토롱식품공업사 전남·북지구 대리점
전화 ②2301 ②6545 ②1179 경원동 1가 110-4
아카데미상가 뒤, 안산부인과 옆(전화주문 배달함)
유 덕 열(스페파노) 유 중 현 배

광고 문의는 화요일까지 5098로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선미꽃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피도(덕배)·이 마리아



1. 성소자 교육: 8월 2~3일
2. 전국 가톨릭 대학생 도보 성지순례: 일시-8월 9일~13일, 장소-충북 연풍~문경세계 참가비-5천원, 예비모임-8월 5일 오후 4시
3.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시험범위: 창세기, 출애굽기
4. 문학 강좌: 일시-8월 22일 오후 7시 30분, 강사-백낙청 교수(서울대)
5. 성가대 지도자 교육: 일시-8월 8~9일
6. 강인찬(도미니교) 신부 영명축하 행사 없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정인영
사도 회장 박기

1. 사도회 윌레회: 6일<목> 오후 7시 30분
회장님·고문·구역장·반장·각 심신단체장 부회장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어머니합창단 윌레회: 6일<목> 오전 10시 성당
합창단원 및 성가모씨 기도와 봉사하고 싶은 어머니
전원 참석 환영합니다
 3. 금요 성서연구: 금요미사 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반 10시 30분, 오후반 7시 30분
 4. 여름 성경학교: 2일<월> 뽀빠이 이상용-성심학교
3일<월> 8일까지-중앙성당
주일학교 자모님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5. 예비자 교리: 교우여러분 예비신자에 관심 가져주세요
 6. 81 마리아블리 110명 참가: 7월 28일 무사히 도착...
 7. 첫 영성체: 8월 15일 10시 30분
 8. 주일학교 영성식: 8월 14일 10시 30분미사
- 지난주 봉헌금: 466,706원

(노송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축! 노송성당 전속 현악합주단 발족: 12명으로 구
성된 현악합주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지휘-은희천 교수님
 2. 인후아파트 공소건립 기금: 익명(10만원), 이수용
(분도)씨(3만원), 감사드립니다
 3. 주일학교 하계교리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자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8시부터
 5. 수녀님들의 성서특강: 8월말까지 휴강합니다
 6. 금주 성경읽기: 구약-에즈라·느헤미야·에스델 전체
 7. 형제회 자모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27,595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도
보좌 신부 서유영
사도 회장 양상열

1. 주일학교 특별교리: 3일부터 9일까지 오전 분당, 오
후 공소, 많은 어린이 보내어 신앙교육에 협조 바람
 2. 반석회 모임: 여름 공식미사 후
8월 7~8일 야유회 관계로 회비 5천원 지참
 3. 첫 영성체만 특별교리: 3일부터 14일까지 오전 9~
12시, 첫영성체 하지 않은 어린이 8세부터
 4. 축! 남성 뽀레시디움 「하늘의 문」 탄생
단장-김용환, 부단장-소병울, 서기-최관수
회계-이영남
 5. L.M. 팀별로 정월 제초작업에 앞장섭시다
 6. 밀린 봉헌금 납부하여 분당 어려움 도움시다
 7. 오늘 오전 12시까지 주일학교 어린이 보내주세요
성심학교 교정에서 행사있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439,67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첫 칠례 5: 8월 6일 저녁 8시
 2. 학생회(중·고생) 하기수련회: 8월 5~8일
장소-임질군 신평 회비-5천원
 3. 학생회(중·고생) 하기 특별교리: 8월 10~14일 오
후 4시~6시, 학생들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람
 4. 이상용(뽀빠이) 성심학교 강당: 8월 2일 12시까지
분당에 모임, 신발주머니 가지고 와요
- 지난주 봉헌금: 307,995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윌레회: 공식미사 후
 2. 중·고생 하기 수련회: 8월 3~6일까지(3박 4일)
3일 오전 9시출발, 장소-지리산
버스 2대대절-박경환(마태오)씨가 제공 감사합니다
 3. 국민학생 하기 특별교리: 8월 3~8일까지(6일간)
오전 9시에 시작, 첫영성체 교리도 같이 시작합니다
 4. 예비자 교리 방학: 8월 한달 교리없음(출석 확인함)
 5. 분당 정화사업 마감: 총공사비-1,040,080원
현 금액-901,900원
황인구·장병동(각 1만원), 이양환·박복규·강귀선·
김금례·홍연미·임안나·김옥동·한을순(각 5천
원), 김영순·박미란·한금례·정재현·이경순·이
귀임·국춘환·강순복(각 3천원), 서명덕·이영소·
이정애·안준례·이은석·임금자·이인순·안옥주·
김청자·이복순·이재영(각 2천원), 최철성(1천5백
원), 이명길·유현순(각 1천원), 김낙균(4만원), 박
경환(5만원) 누계-1,176,000원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균 ② 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180,450원 교무금: 147,000원

(숲정리)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윌레회: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하교리: 8월 3일~8일까지
(매일 오전 9~12시)
 3.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3시~8시
 4. 성모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미사 전후에 고백성사 증
승천 특별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모승천 성가연습: 매주 공식미사 후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① 양병철 ② 서윤석, 기도-박해근
- 지난주 봉헌금: 276,05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장우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5. 중·고생·젊은이 하계수련회: 8월 3~6일
장소-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참가비-중·고생 2천5백원, 젊은이 3천5백원
 6. 수녀원 신축기금: 380,000원 감사합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8월 9일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 ① 이현재 ② 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이사정, 독서 ① 장금태 ② 신일균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 ① 변해식 ② 정동희
 8. 금주 평일미사 안내
월-아침, 화·주-저녁 말씀의 전례
목-저녁, 금·토-아침·저녁
 9. 보좌신부 예비자 교리반 단합대회: 9일 송광사
- 지난주 봉헌금: 452,75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윌레회: 오늘밤 미사후
 2. 꾸리아 회합: 다음주 오후 2시
 3.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 7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4. 어린이 여름 교리반: 8월 3일부터 ※ 꼭 보내주세요
 5. 수녀원 신축금: 문대현(1만원), 백갑례(5천원), 아
나나시야(3천원)
- 지난주 봉헌금: 129,195원 교무금: 152,000원